

6/8(수) 느헤미야 묵상 6

느헤미야 4:1-12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 방해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심히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강성해지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사이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주변의 족속들입니다.

방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을 때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느2:19절에 보면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나 너희가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게 됩니다. 그들이 왕의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은 추정 건대 제 1차 포로 귀환 시기 때 왕의 반대로 성전 재건이 오랫동안 멈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는 느헤미야 시대 이전에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는 시도들이 여러번 있었지만 그 때마다 가나안 족속들의 시비와 고소로 인해 성벽재건이 멈춘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전의 유다 지도자들과는 달리 그의 직책이 왕의 술말은 관리였기 때문입니다. 즉 왕의 신복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귀환할 때도 느헤미야는 왕이 써준 조서와 왕이 직접 보낸 준군대 장관과 마병의 호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직접적인 방해는 하진 않았지만 여러가지 심리적인 방해와 훼방을 놓게 됩니다(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본문 2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는 처음부터 ‘미약하다’는 말로 정죄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2)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 말은 ‘너희가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성벽을 결코 완성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상대를 비꼬는 것입니다. 3)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말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아무런 도움이 못되고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4)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이는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오랫동안 이루지 못한 일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5)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는 유다가 이미 멸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었던것은 고대 역사를 보면 많은 나라들이 흥왕성쇠를 거듭하는데 특히 이스라엘 같은 작은 민족들은 한번 멸망을 하면 다시 일어서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반응

느헤미야는 훼방꾼들의 비난에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4-5절, “우리 하나님이며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는 자신과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모욕을 당했다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시각과 관점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지도 하에 백성들은 마음을 모아 성벽을 쌓는 일을 열심히 수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공동체의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 전체가 함께 힘과 마음을 모을 때 비로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방해자들의 공격이 더 거세지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비록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다 두르고 그 높이를 절반이나 쌓았지만 적들의 움직임이 더욱 더 강해지자 10-12절을 보면 방해꾼들과 주변에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이 먼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면서 적들이 이스라엘을 곧 칠지도 모른다는 첩보를 10번씩이나 느헤미야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도 한 두번 들을때는 그런가보다 하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열 번씩이나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어떨까요? 아마 모든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게다가 방해자들이 하나의 민족도 아니고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인 많은 원수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난공불락의 상황이었습시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 대로 느헤미야가 훼방꾼들의 영적인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느헤미야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공격하고 모함하는 훼방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와 상처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나를 공격하고 정죄하는 원수의 말을 그들의 생각으로만 여기고 그것을 사실로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훼방꾼들의 말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였다면 그는 낙심과 좌절에 빠질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4절 말씀대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들이 욕한다”고 반응하면서 그 공격을 피하게 됩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 중에 느헤미야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고후 4:8-9, “우리가 사방으로 옥여쌘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지방에서 바울의 선교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그의 시선을 주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고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행 18:9-10,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신앙 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사탄의 공격과 정죄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4/11 일 유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체 어린이 750 만명 중 480 만명이 피난길에 올랐으며 그 중 280 만명은 우크라이나 내에 그리고 200 만명은 다른 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외국에 있는 어린이들 중 거의 절반 이상이 식량과 물 부족 그리고 의료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취약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량과 생수 및 의료 등 인도적 지원이 적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중보하겠습니다.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노스헤이븐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 **지역 선교를 위한 기도:** IRIS(난민사역)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